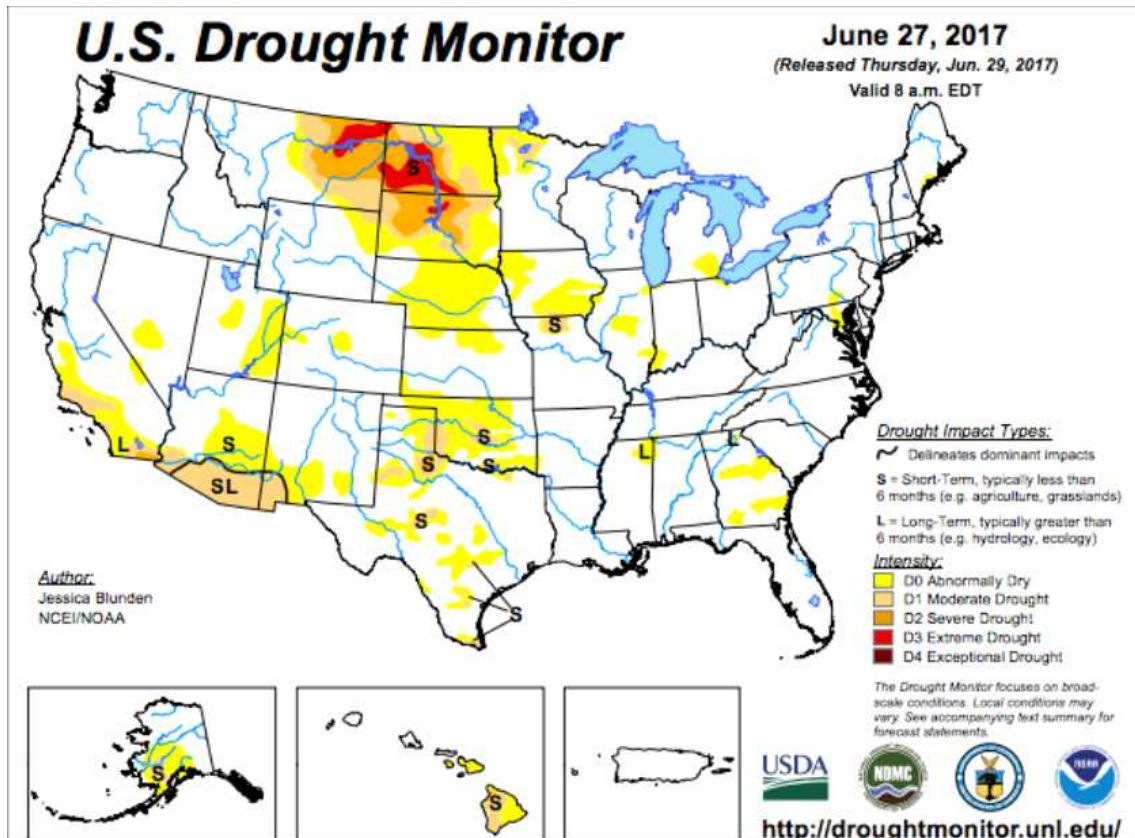


7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4, No. 27)

□ 미국 기후 현황(6/25~7/1)

남동부 평원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.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~8°F 이상 낮아졌다.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, 플로리다 남부와 텍사스 남부 및 서부에서는 기온이 높았다. 서부 전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,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지난주처럼 높이 오르지는 않았다. 하지만 이 지역의 기온은 여전히 평년에 비해 4~8°F 정도 높은 편이다. 반면,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. 옥수수 재배지역 북부와 서부에서는 곳에 따라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. 미시간 남부, 네브라스카 및 일리노이 중부 등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아졌다.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관측되기도 했지만, 소나기가 때때로 내리면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

□ 세계 기후 현황(6/25~7/1)

■ 유럽: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3°C 정도 낮았고, 프랑스, 영국, 독일 및 폴란드 북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3°C 정도 높았지만, 지난주 평년에 비해 8°C 이상 기온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리 더운 날씨는 아니었다. 이들 지역에서는 10~7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. 하지만,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개화기에 맞춰 상당한 양의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. 다뉴브 강 하류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~41°C까지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러시아의 경우, 지난 7월 1일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1~2배 수준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. 특히 남부의 해바라기 및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42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토양 수분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.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부에서도 10~9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우크라이나에서는 중부 지역에서 10~24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이들 지역에서 지낸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50%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서부의 대두 및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10~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동부와 중부의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.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, 낮 최고기온은 33~36°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남부에서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, 곳에 따라서는 500mm 가까운 비가 내리기도 했다. 이번 비로 곳곳에서 홍수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. 중국 북부 평원의 옥수수 재배지역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. 북동부의 Heilongjiang 및 Jilin 등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Heilongjiang, Jilin의 서부 지역 및 Liaoning, 내몽고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, 낮 최고기온은 40°C 가까이 올랐다. 한반도 일대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. 일본에서는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주요 쌀 재배지역인 Honshu 북부와 Hokkaido 등에서는 30mm 미만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.

■ 호주: 서호주에서는 또다시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도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남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 남호주, 빅토리아 북부,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.

■ 아르헨티나: 남부의 Buenos Aires, La Pampa 및 Cordoba, Santa Fe 남부 등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이번 비로 농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. Santa Fe 북동부에서부터 우르과이 북부 등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3~5°C 정도 높았고, 낮 최고기온은 북부에서는 30°C 내외, 남부에서는 20°C 중반까지 올랐고, 밤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권까지 내려가기도 했다.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옥수수,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66%, 98%를 기록했는데,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15%p 정도 앞서는 수치이다. 같은 기간 기준 밀의 파종률은 57%였는데,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



59%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이다.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35%로,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%p 정도 빠른 수준이다.

■ 브라질: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.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브라질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, Goias, Mato Grosso do Sul 및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, Bahia 서부, Piaui, Maranhao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. Rio Grande do Sul 남부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Rio Grande do Sul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밀 파종률은 71%인 것으로 나타났다. Parana의 밀 파종률은 92%였고,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4%였다. Mato Grosso의 6월 30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29%로,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%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. 북동부 해안의 커피, 카카오,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, 남부의 농업지역에서는 밤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.